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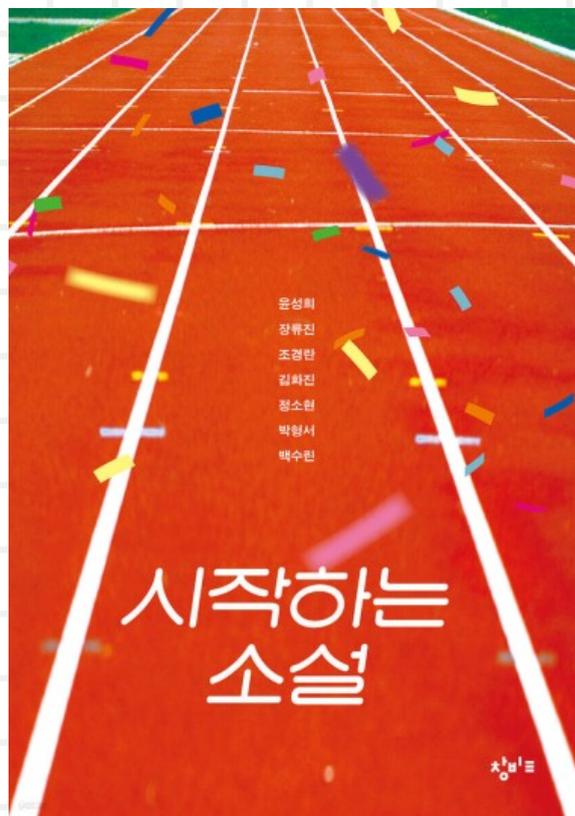
독서 활동지

시작하는 소설

윤성희 외

창비교육

2024



대상 중고등학생

주제어 #청소년 #삶 #사랑 #인생 #시작

작성자 권유정, 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활동 계획

단계	활동 내용	진행 차시
독서 전 활동	책을 읽기 전에	1
독서 중 활동	1장, '마법사들' 독서 활동	2
	2장,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 독서 활동	3
	3장, '봄의 피안' 독서 활동	4
	4장, '근육의 모양' 독서 활동	5
	5장, '어제의 일들' 독서 활동	6
	6장, '실뜨기놀이' 독서 활동	7
	7장, '흑설탕 캔디' 독서 활동	8
독서 후 활동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	9

1차시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읽기 전에 표지와 제목을 살펴보고, 책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해 봅시다. 제목, 그림, 부제목, 소개글에는 책의 주제와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단서가 담겨 있습니다. 표지를 찬찬히 살펴보며 우리가 읽게 될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p>제목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p>	
<p>앞표지와 뒷표지를 살펴본 뒤, 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p>	
<p>'시작'이란 무엇인가요?</p>	

2차시 1장, <마법사들> 독서 활동

1. 필사로 정리하는 독서 노트

첫 번째 작품 <마법사들>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 필사해 봅시다.

2. 작품 한눈에 정리하기

등장인물	
배경 (시간과 공간)	
작품의 주요 사건	
작품 한 줄 요약하기	

2차시 1장, <마법사들>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아버지는 왜 '나(민호)'가 까치발로 걷는다는 사실을 몇 년간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2) 민호는 왜 '나(민호)'를 괴롭혔나요?

3) 성규는 왜 '나(민호)'에게 가출하자고 했나요?

4) '나(민호)'는 어떻게 까치발로 걷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나요?

5) <마법사들>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2차시 1장, <마법사들>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아버지는 왜 '나(민호)'가 까치발로 걷는다는 사실을 몇 년간 알아차리지 못했나요?

→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는 삶을 꾸려 가는 데에 급급해 '나'의 작은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15쪽 참고)

2) 민호는 왜 '나(민호)'를 괴롭혔나요?

→ 아이들이 '나'와 민호를 묶어 놀리며 그를 '작은 민호'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함께 엮여 놀림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민호는 '나'를 미워하며 거리를 두려 했던 것이다.(16쪽 참고)

3) 성규는 왜 '나(민호)'에게 가출하자고 했나요?

→ 생일날 아버지가 미역국을 끓여 주지 않은 데다, 축하 인사 한마디조차 남기지 않은 것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갈등 속에서도 늘 쪽지를 남기던 아버지의 무관심이 성규에게는 더 크게 느껴졌다.(30쪽 참고)

4) '나(민호)'는 어떻게 까치발로 걷는 습관을 고치게 되었나요?

→ 담임 선생님이 '나'의 까치발 습관을 알아차리고 아버지에게 알렸고, 이후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바닷가로 캠핑을 갔다. 해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는 놀이를 하던 중 묵직한 감각을 느끼는 순간, 해가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듯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내려오며 까치발 습관이 고쳐졌다.(34쪽 참고)

5) <마법사들>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3차시 2장,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 독서 활동

1. 필사로 정리하는 독서 노트

두 번째 작품,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 필사해 봅시다.

2. 작품 한눈에 정리하기

등장인물	
배경 (시간과 공간)	
작품의 주요 사건	
작품 한 줄 요약하기	

3차시 2장,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주인공은 회사 앞 회전문 앞에서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2)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직전에 주인공과 비슷한 감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3)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3차시 2장,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주인공은 회사 앞 회전문 앞에서 왜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 주인공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을까, 추가 합격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 이미 서로 친해진 사람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등을 미리 상상하며 걱정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전, 부정적인 상황을 먼저 떠올리며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이다.(44쪽 참고)

2)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 직전에 주인공과 비슷한 감정이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으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3) <백한 번째 이력서와 첫 번째 출근길>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4차시 3장, <봄의 피안> 독서 활동

1. 필사로 정리하는 독서 노트

세 번째 작품, <봄의 피안>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 필사해 봅시다.

2. 작품 한눈에 정리하기

등장인물	
배경 (시간과 공간)	
작품의 주요 사건	
작품 한 줄 요약하기	

4차시 3장, <봄의 피안>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선생님의 오른쪽 눈에 나타난 작은 얼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 선생님이 강사직과 수강생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문기는 왜 복지 센터의 무료 강습의 강사를 맡아 계속 수업을 이어 가겠다고 했을까요?

4) '피안'이란 무엇이며, 제목 <봄의 피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5) <봄의 피안>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4차시 3장, <봄의 피안>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선생님의 오른쪽 눈에 나타난 작은 얼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작은 얼룩'의 의미를 학생이 자유롭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예시) 그 얼룩은 과거 재래시장에서 발생한 큰 화재 사건과 관련된 흔적이다. 단순한 신체적 상처가 아니라, 선생님이 짊어지고 살아온 죄책감과 상처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표식이라고 볼 수 있다.

2) 선생님이 강사직과 수강생을 잃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 재래시장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원인이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일로 인해 직업과 신뢰를 모두 잃게 되었다.

3)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문기는 왜 복지 센터의 무료 강습의 강사를 맡아 계속 수업을 이어 가겠다고 했을까요?

→ 복지센터에서의 강의는 선생님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기는 닭 요리를 배운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요리를 하며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감각과 함께 책임감도 생겼기 때문에 수업을 이어 가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75쪽)

4) '피안'이란 무엇이며, 제목 <봄의 피안>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피안'의 의미를 바탕으로 제목과 작품의 내용을 연결 지어 보고, 이를 통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지도해주세요.

→ (예시) '피안(彼岸)'은 고통과 번뇌의 세계를 건너 도달하는 이상적인 세계, 즉 건너편 언덕을 의미한다. 작품 속에서 '봄의 피안'은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을 넘어 새로운 시작과 화해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한다. 겨울과 같은 시간을 지나, 따뜻한 봄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제목이라 할 수 있다.

5) <봄의 피안>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5차시 4장, <근육의 모양> 독서 활동

1. 필사로 정리하는 독서 노트

네 번째 작품, <근육의 모양>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 필사해 봅시다.

2. 작품 한눈에 정리하기

등장인물	
배경 (시간과 공간)	
작품의 주요 사건	
작품 한 줄 요약하기	

5차시 4장, <근육의 모양>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재인의 생각처럼, '해 본 것'을 모두 더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빠지는(-) 것도 있을까요?

2) 은영은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나요?

3) 재인은 왜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해 본 것' 목록에 넣기로 했나요?

4) 은영은 왜 자신을 액체 괴물같다고 생각했나요?

5) <근육의 모양>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5차시 4장, <근육의 모양>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재인의 생각처럼, '해 본 것'을 모두 더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빠지는 것도 있을까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예시) 재인의 '해 본 것' 목록은 단순히 경험을 더해 가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험은 무언가를 얻는 동시에 잃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즉, 인생의 경험은 더하기이면서 동시에 빼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은영은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나요?

→ 자꾸만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상사 때문이었다. 그 상사와 계속 마주하며 일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와 닮은 모습으로 변해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이어 가고 싶지 않아 회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89쪽 참고)

3) 재인은 왜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해 본 것' 목록에 넣기로 했나요?

→ 단순한 이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목록에 넣을 이유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파혼'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경험 역시 자신의 삶을 이루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자신의 '인생 목록'에 포함시키고 싶어졌기 때문이다.(95쪽)

4) 은영은 왜 자신을 액체 괴물같다고 생각했나요?

작품 속에서 독서 질문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예시) 은영은 자신이 늘 남들보다 느리다고 느꼈고, 고객들의 반복되는 변경과 취소 문자 하나에도 크게 흔들렸다. 일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혼란을 겪으며 점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액체 괴물은 손에 잘 묻지 않고 자유롭게 형태를 바꾸는 특징이 있지만, 은영은 자신이 오히려 손에 자꾸 묻고 모양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불량한 액체 괴물' 같다고 생각했다. 즉,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서툰 자신을 자책하며 그렇게 비유한 것이다.

5) <근육의 모양>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6차시 5장, <어제의 일들> 독서 활동

1. 필사로 정리하는 독서 노트

다섯 번째 작품, <어제의 일들>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 필사해 봅시다.

2. 작품 한눈에 정리하기

등장인물	
배경 (시간과 공간)	
작품의 주요 사건	
작품 한 줄 요약하기	

6차시 5장, <어제의 일들>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율희의 이야기를 들던 '나(상현)'은 왜 어느 순간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2) 156쪽에서 어머니는 '나(상현)'에게 "모든 게 화무십일홍인 거라."라고 말합니다. '화무십일홍'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상현의 삶은 다시 시작될까요?

4) <어제의 일들>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6차시 5장, <어제의 일들>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율희의 이야기를 들던 '나(상현)'은 왜 어느 순간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 기억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그만큼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없었더라도, 이십 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쯤이면 자연스럽게 희미해졌을 기억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생각하자 굳이 되찾지 못한 기억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고, 더 이상 궁금하지 않게 되었다. (122쪽 참고)

2) 156쪽에서 어머니는 '나(상현)'에게 "모든 게 화무십일홍인 거라."라고 말합니다. '화무십일홍'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품 속에서 독서 질문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예시)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은 아무리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기쁨도, 슬픔도, 젊음도, 고통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삶의 이치를 담고 있다. 어머니는 상현이 겪어 온 복잡하고 힘들었던 시간 또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하고자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지금의 고통이나 혼란 역시 언젠가는 희미해지고, 삶은 다시 흘러간다는 위로의 뜻이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3) 상현의 삶은 다시 시작될까요?

작품 속에서 독서 질문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예시) 상현은 지나간 날들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돌이킬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아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하며 현재를 긍정한다. 과거의 위력은 이미 약해졌고, 그는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는 상현이 과거에 머무르기보다 현재를 발판 삼아 다시 삶을 이어 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은 아니지만, 새로운 의미에서 다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4) <어제의 일들>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7차시 6장, <실뜨기놀이> 독서 활동

1. 필사로 정리하는 독서 노트

여섯 번째 작품, <실뜨기놀이>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 필사해 봅시다.

2. 작품 한눈에 정리하기

등장인물	
배경 (시간과 공간)	
작품의 주요 사건	
작품 한 줄 요약하기	

7차시 6장, <실뜨기놀이>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나'의 아들 성범수는 왜 엄마에게 혼나면서도 밤에 공원으로 나왔을까요?

2) '나'는 왜 자신들을 '궁핍한 주인공'에서 '부유한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177쪽)

3) '그 분'이 떠난 뒤, '나'와 아내의 대화에는 왜 알맹이가 없었을까요?

4) <실뜨기놀이>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7차시 6장, <실뜨기놀이>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나'의 아들 성범수는 왜 엄마에게 혼나면서도 밤에 공원으로 나왔을까요?

→ → '나'의 일용직 일터 동료들이 찾아와 선물을 건네주었던 기억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다. 혹시 또 누군가 선물을 들고 자신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그들을 마중하듯 공원으로 나왔던 것이다. (168쪽 참고)

2) '나'는 왜 자신들을 '궁핍한 주인공'에서 '부유한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177쪽)

작품 속에서 독서 질문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예시)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처럼 느껴졌다면, 티베트 승려들의 방문 이후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오히려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듯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3) '그 분'이 떠난 뒤, '나'와 아내의 대화에는 왜 알맹이가 없었을까요?

→ 두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존재인 아들 성범수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피했기 때문이다. 정작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실과 슬픔을 꺼내지 못한 채 주변적인 이야기만 나누다 보니, 대화가 겉돌고 공허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187쪽 참고)

4) <실뜨기놀이>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8차시 7장, <흑설탕 캔디> 독서 활동

1. 필사로 정리하는 독서 노트

일곱 번째 작품, <흑설탕 캔디>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골라 필사해 봅시다.

2. 작품 한눈에 정리하기

등장인물	
배경 (시간과 공간)	
작품의 주요 사건	
작품 한 줄 요약하기	

8차시 7장, <흑설탕 캔디>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각설탕 탑을 쌓고 있는 브뤼니에 씨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어떤 생각에 잠겼나요?

2) 할머니는 브뤼니에 씨가 건넨 말을 '대명사 두 개와 동사 한 개'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 말은 "Je vous attendrai(당신을 기다릴게요)", "Vous me manquerez(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Je vous aime(사랑해요)" 중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꿈속에서 할머니는 주먹을 꼭 쥔 채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달라며 몇 번이나 떼를 썼지만, 할머니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것은 내 것이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 <흑설탕 캔디>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8차시 7장, <흑설탕 캔디> 독서 활동

2. 독서 질문으로 작품 되짚어보기

1) 각설탕 탑을 쌓고 있는 브뤼니에 씨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어떤 생각에 잠겼나요?

→ 할머니는 각설탕을 진지하게 쌓고 있는 브뤼니에 씨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여겼지만,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그를 끝내 다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안쪽에 통증을 느꼈다. 또한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욕망과 갈망은 사라지지 않지만, 육신은 점점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늙어 간다는 것의 의미를 곱씹었다. 브뤼니에 씨의 아이 같은 몰두와 햇살에 어른거리는 그의 모습은, 삶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의 시간에 아무 의미도 두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쓸쓸함과 불안도 느꼈다. 이해와 공감, 혹은 연대 같은 감정이 존재하길 바라면서도, 결국 서로의 삶을 완전히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을 것이다.(229쪽 참고)

2) 할머니는 브뤼니에 씨가 건넨 말을 '대명사 두 개와 동사 한 개'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 말은 "Je vous attendrai(당신을 기다릴게요)", "Vous me manquerez(당신이 그리울 거예요)", "Je vous aime(사랑해요)" 중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 (예시) 나는 브뤼니에 씨가 할머니에게 건넨 말이 "Je vous aime(사랑해요)"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할머니가 그 말을 직접 적지 않고 '대명사 두 개와 동사 한 개'라고만 남긴 것은, 그 문장이 너무도 사적이고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다리겠다는 말이나 그리울 것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마음에 남아 기록될 만큼의 울림은 결국 사랑의 고백이었 것이다.

3) 꿈속에서 할머니는 주먹을 꼭 쥔 채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달라며 몇 번이나 떼를 썼지만, 할머니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이것은 내 것이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 (예시) 할머니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억과 사랑의 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브뤼니에 씨가 건넨 말,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누구와도 완전히 나눌 수 없는 할머니만의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 것이란다."라는 말에는 그 기억이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 온 소중한 감정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 타인에게 줄 수 없는 자신의 추억과 마음이었을 것이다.

4) <흑설탕 캔디>에서는 어떤 '시작'을 담고 있나요?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

9차시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

『시작하는 소설』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안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섰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면서도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이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제 작품을 덮고, 우리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시작'은 무엇인가요? 이미 시작했거나, 망설이고 있거나, 언젠가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써 봅시다.

1. 나의 '시작' 떠올리기

1) 내가 최근에 시작한 일은 무엇인가요?

(예: 새로운 관계, 진로 고민, 동아리 활동, 도전, 변화 등)

2) 그 시작 앞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설렘 두려움 기대 부담 망설임 기타: _____

3) 그 시작을 망설이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2. '시작하는 소설', 작품과 연결하기

1) '시작하는 소설' 속 인물 중 나와 가장 닮은 인물은 누구인가요?

2) 그 인물의 시작과 나의 시작은 어떤 점에서 비슷한가요?

3) 그 인물의 이야기가 나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9차시 시작하는 나의 이야기

3. 나의 '시작'에게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시작'을 만납니다. 어떤 시작은 설렘으로 다가오고, 어떤 시작은 두려움과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앞선 활동에서 우리는 나의 시작을 떠올려 보고, 그때의 감정과 망설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시작하는 소설』 속 인물의 시작과 나의 시작을 연결하며, 작품 속 인물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제 그 생각을 바탕으로 나의 '시작'에게 편지를 써 봅시다. 나를 떨리게 했던 순간,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용기, 그럼에도 한 걸음 내딛었던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아 보세요. 이미 지나온 시작이라면 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시작이라면 앞으로의 다짐을 적어도 좋습니다. 이번 활동이 나의 시작을 돌아보고, 나 스스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